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2-13)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 이 땅을 위해 함께 부르심 받은 동역자님께

주 안에서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이곳의 12월에서 2월의 계절은 겨울이자 건기로 평균기온이 섭씨 15-29도로 가장 덥지 않은 계절입니다. 라오스에 와서 처음으로 에어콘 없이 지낼 수 있어 좋습니다. 이제 3월부터 다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파송을 받은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께서 이 땅을 위해 부르신 이후 많은 동역자님들의 쉬지 않는 기도와 물질 후원은 주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 질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열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 그 동안의 사역 이야기

**이웃전도:** 라파한방센터가 작년 8월 오픈 될 무렵 이웃에 마사지센터가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라오스의 각 지방에서 온 25여명의 마사지사들이 이곳 마사지센터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합니다.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하지만 한달에 200-300불을 벌기 위해 먼 곳 지역에서 온 마사지사들은 이런 열악한 생활환경을 잘 이겨내며 생활합니다.

저는 복음 전도 전략을 바꿔 다른 먼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치료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이웃인 이들에게 3개월이 넘게 친해지기 위해 방문해서 찾아가 아픈 이들은 무료로 치료해주고, 식사 때가 되면 함께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성탄절에는 라파한방센터에 성탄트리를 같이 만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모든 마사지사들에게 선물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이제는 이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 17살인 제니는 작년 11월 말에 엄마 쁘을 만나러 차로 약 12시간 거리의 빠세라는 지방에서 수도인 비엔티엔으로 올라왔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한 제니는 12월 초순에 농사를 짓고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제니의 엄마에게 딸을 이곳에서 공부하고 기술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쁘과 제니는 이곳에서 미래를 위해 공부하며 기술을 배우며 일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제니는 이곳에서의 공부하기 위해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에 저는 제니를 라파한방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하고, 제니가 영어학원, 미용학원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을 스스로 벌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저는 이 모녀에게 번역기를 돌려가며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두 달째 현지 교회에 함께 출석하며 조금씩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교와 샤마니즘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어 두 모녀가 아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사지사들과 더 친분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방문치료 :** 최근 라파한방센터에는 현지인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치료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면 요한복음서와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저는 한달에 한번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치료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찬사방 교회, 1월에는 나시우 몽족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청년 비전 세움 세미나 :** 1월에는 2회에 걸쳐 10대와 20대 청년들을 라파한방센터에 초대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어렵고 경제적인 자립이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비전도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 걸어왔던 저의 젊었을 때과 현재의 경험과 계획들을 나누며 청년들을 격려하고 비전을 세워주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골에 담요와 장학금 나누기:** 이곳은 11월~2월까지 겨울입니다. 온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



은 썹씨 10~25도입니다. 하지만 산에 사는 종족들은 난방도 되지 않는 냉골에서 매우 추운 시간을 보냅니다. 덮는 이불도 충분치 않습니다. 저희는 라파한방센터 운영을 통해 발생된 이윤과 후원금들을 모아 400여명의 현지인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나눔과 동시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50여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육성회비, 교재와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지대학 사역:** 김선교사는 9월부터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라오스인들과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학기 초 학생들의 생소한 이름조차 외우기 힘들었지만 한 학기동안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4학년 학생들은 지난 학기 business Korean 강의를 듣고, 2월부터 인턴으로 한국 회사에서 두 달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을 잘 활용해서 한국 회사에 잘 적응하고 졸업 후 진로도 잘 연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현지언어 습득:** 늦은 나이에 생소한 언어를 배우다보니 공부를 해도 쉽게 외워지거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많지만 겸손히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한 가운데 사는 이들이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자족하지 못하는 욕심과 조급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갈수록 더 이 땅의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L국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함께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주심에 저희는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복음전도를 위한 소명과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 기도제목과 감사

1.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 그리고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2. 라파 한방 치료 센터를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L국 사역자들과 현지인 그리고 이곳 교민들에게까지 치유와 회복으로 경험되어지고 치료센터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3. 전도받은 모녀인 쁘과 제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안에서 잘 양육받아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3월부터 김선교사가 이들에게 성경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4. 예수를 믿지 않는 현지인들에게 치료 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황 선교사가 지치지 않고 건강하며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의지하며 이 민족을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도록
5. 김 선교사가 현지대학에서 2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를 잘 준비하고, 현지인 언어교사와 현지어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교차 문화 신학 Ph.d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역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6. 김선교사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잘 결정하고 좋은 직장에 근무하게 될 수 있도록
7.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큰 아들 재훈이가 이탈리아에서 학업을 잘 감당하고, 대학편입결과를 기다리며 미국에서 학업 중인 작은 아들 지한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8. 2월 7일-10일 사이 몽족 교회 성도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양육받는 현지 청년들을 위한 한방 치료봉사가 몽족교회와 라파한방센터에서 있는데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서 오는 한의사들과 돕는 이들에게 주께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귀한 성김의 시간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1. 미국에서 후원: 송금시 **Memo(또는 Add a Message)**란에 “**Hwang Gyuin**” 꼭 기입해 주세요.

- ① 은행구좌정보 : Routing #: 122043602 / Account #: 07409881
  - ② Venmo: ID: GP-USA Inc (GI) / Email: gpfinance@gpusa.org
  - ③ Zelle: Mobile '657-538-7096' or E-mail 'gpfinance@gpusa.org'
- \*Add a Message 란에 “**Hwang Gyuin**”을 꼭 기입해 주세요
- ④ Checks: 'GP-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주소로/Pay to order:GP-USA

2. 한국에서 후원하시는 방법

계좌번호 : 111-890163-81007 예금주(황규인) / 은행명:KEB하나은행

\* 재정후원문의 : Email : [gpfinance@gpusa.org](mailto:gpfinance@gpusa.org) / Phone : +1 (714) – 774 – 9191  
(GLOBAL PARTNERS, USA / 재정 담당 : 박미라 간사)